

AWCA 목적

AWCA는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및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건강한 자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발행인 : 줄리 다인스
편집인 : 제미경

SUMMER | 2020
www.awcanj.org

Vol. 55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Tel. 201-862-1665, 1664, 1116 / 9111(홀케어) Fax. 201-862-1662 E-mail: info@awcanj.org

미래를 위한 섬김



Julie Dines, Board Chair

안녕하세요!

부족한 제가 AWCA 이사회에 제 17대 회장으로 섬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AWCA의 훌륭한 직원들과 이사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고 교육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6년전에 연중 가장 큰 기금 모금 행사이인 갈라준비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 AWCA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WCA의 놀라운 여성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역과 사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갈라위원회에서의 봉사활동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초청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AWCA의 사역, 특히 시니어센터 사역은 저에게 정말 고무적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45년전에 캘리포니아 LA로 이민을 왔습니다. 당시 그 곳에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 센터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을 위해서 편지와 서류를 번역해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LA에 "AWCA"와 같은 단체가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좋은 자원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LA에도 많은 한인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최근 이민자들과 오래된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니어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공예, 요가, 뜨개질, 코바늘 등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부지역의 겨울을 나기 위하여 LA "할머니"로부터 여러 개의 목도리와 모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지금 씨니어센터의 열정적인 회원이 되어서 자신의 황금(노년) 시절의 목적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40년전에 AWCA를 창립한 창립자들의 선견과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선견이 여성 리더십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중점을 두고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AWCA의 사명은 우리 이웃이 건강하게 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돋는 것입니다. 전례없는 COVID-19 전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센터와 프로그램을 닫아야 했지만 AWCA의 사명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고,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천사 푸드 바구니를 준비하여 버겐카운터 전역에 딜리버리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일매일의 활동을 통하여 "Love in Action"(사랑의 실천)이라는 올해의 갈라 주제를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저는 AWCA에서 훌륭한 여성들과 함께 봉사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의 업적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계속 유지되고, 다음 40년 동안 여성의 리더십이 변창할 수 있기 를 소망합니다.

AWCA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전세계적 전염병 '함께 극복해요'

AWCA는 뉴저지 주정부와 버겐카운티 정부, 그리고 AWCA 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티넥타운 정부의 Covid-19 긴급명령에 근거하여 2020년 3월 17일, 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건물을 클로우즈하고 AWCA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재택근무 동안 AWCA는 Covid-19 Helpline을 개설 (오전 9시~자정, 월~금) 운영하고, 한국어(Kakao), 중국어(Wechat), 일본어(Lime)를 통하여 자국의 언어로 코로나 관련 업데이트 및 사회복지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2일 직원들이 재택근무에서 오피스 근무로 모두 복귀한 후, 7월 현재까지 Covid-19 전세계적 전염병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형이다. AWCA는 지난 3월 말부터 7월말까지 모두 5백개에 달하는 '엔젤 푸드 바구니 (음식, 마스크, 손세정제)'를 버겐카운티 및 일부 뉴욕, 중부 뉴저지 지역에 직접 딜리버리 했으며, 이를 위하여 70여명의 개인 및 교회,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재단(KACF),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았다. 위험한 시기에 '엔젤 푸드 바구니' 딜리버리에 수고해 주신 AWCA 이사회,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CENSUS '미래를 향한 준비'

대망의 꿈을 갖고 시작한 2020년은 10년마다 한번씩 진행되는 인구조사 센서스가 있는 해이다. AWCA는 뉴저지 주 정부로부터 2020년 인구조사 공식홍보센터로 지정받아 2019년 여름부터 센서스를 위한 직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AWCA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센서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센서스 조사원 채용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AWCA 회관과 세 곳의 한·중·일 지역 교회에 센서스 이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Covid-19 이후에도 온라인과 전화를 통하여, 푸드바구니 달리버리를 통하여,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 리지필드, 팔리세이즈팍, 클립사리드 팍 등에서 센서스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센서스 조사원들이 집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예산이 결정되고, 그 예산은 앞으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센서스 참여에 1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10년이 편안해 진다.

www.my2020census.gov

한국어 직통전화 844-392-2020



AWCA 소식

2018년 9월 – 2020년 7월

2020 SAT & ACT 스칼라십 클래스 오픈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2020년 SAT & ACT 스칼라십 클래스가 7월 6일부터 8월 14일 까지 6주간동안 진행되었다. COVID-19을 고려하여 온라인 집 중 클래스로 진행된 이번 클래스는 뉴저지와 뉴욕, 시카고 지역의 10, 11, 12학년 15명이 선정되어 전액수업료 면제를 받게 되었다. 올해는 프레스티지 학원의 강사진과 교재, Shelby Kim, Ellie Chung 등 두 명의 TA가 자원봉사로 참여했으며,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에서 후원했다.



AWCA 사무실 업무 재개

뉴저지 베겐카운티 티넥에 위치한 AWCA는 뉴저지 주정부의 단계별 재오픈 방침에 따라 6월 22일부터 회관 사무실업무를 재개했다. 지난 3월 16일 재택업무로 전환한지 3개월만이며, 사회복지상담 및 일부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일부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된다.



AWCA, KACF 그랜트 수혜기관으로 선정

AWCA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의 2020년 보조금 수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6만 7천달러의 기금은 앞으로 1년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뉴욕, 뉴저지 10개 비영리단체가 한인커뮤니티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2020 인구조사 센서스 발대식

뉴저지 주정부의 후원을 받은 2020 센서스 홍보기관으로 선정된 AWCA는 2월 17일 공식적으로 센서스 홍보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는 한·중·일 등 다민족 4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베겐카운티 센서스 위원회 오토키즈 베겐카운티 의원(프리홀더), 2020 한인 인구 조사 추진위원회 앤드류 김 위원장, 인구조사국 요원 등이 참여하여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줄리 다인스-신임회장 취임



AWCA 이사회는 2019년 12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줄리 다인스 이사회 서기를 제 17대 이사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다인스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 12월까지 2년 간 임기를 수행한다.

뉴저지 주 유일한 아시아 센서스 홍보기관 선정

AWCA는 뉴저지주정부 센서스위원회가 선정한 2020 센서스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원금 수혜단체로 선정되었다. 2020센서스와 관련하여 뉴저지 주에서 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모두 52개이며, AWCA는 이 가운데 유일한 아시안 단체이다.



봉사자 감사의 날

AWCA 이사회는 12월 9일 AWCA 강당에서 2019년 일년 동안 AWCA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봉사를 해온 자원봉사자를 초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따뜻한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봉사자와 직원, 그리고 이사진이 함께 했다.



AWCA와 CarePlus –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AWCA와 CarePlus는 11월 17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세미나를 열고 사춘기와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방지 대하여 강의를 갖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정신 건강 치료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케어플러스의



케빈 우 임상심리사가 진행했으며, 15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다.

NJ 은퇴 목사회에 치매예방세미나 제공

AWCA 아시안 시니어프로그램은 11월 7일 뉴저지 은퇴목사회 정기예배에 참여하여 치매예방 세미나 및 치매자가검사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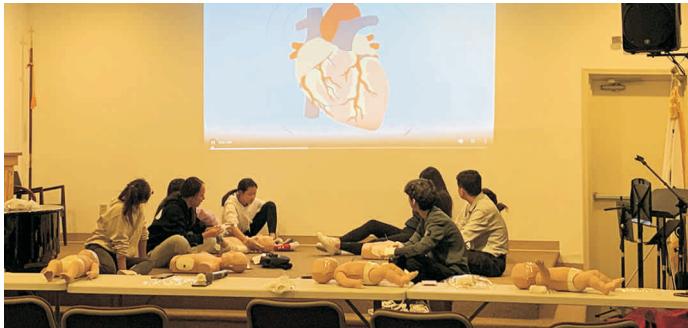
AWCA 39주년, 연례 기금모금 만찬 성황

AWCA는 2019년 11월 1일 창립 39주년 기념 연례 기금모금 만찬행사를 업스테이트 펠리버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계 각층의 한인 및 타민족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AWCA를 격려, 후원했으며, 스티브 강, 조동인, 후일란 등 세명에게 자원봉사 공로상을 전달했다. 권수잔 회장은 지역사회를 향한 실천하는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긴급응급조치-심폐소생술 훈련

AWCA는 2019년부터 적십자사 긴급응급조치 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성인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4번에 걸쳐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훈련을 실시하여 모두 32명이 자격증을 받았다.



청소년 리더십클래스



AWCA는 2019년 1년동안 청소년 리더십 클래스를 진행하여 봉사정신, 지역사회 참여, CPR (심폐소생술) 클래스, 식사매너 및 에티켓,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통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클래스는 스텔파니 장 AWCA 교육디렉터의 지도아래 8명의 학생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치매예방행사 개최 – 중국 커뮤니티

AWCA는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잉글우드 병원에서 중국 커뮤니티를 위한 치매예방행사-'치매, 그 두려움을 극복하다'를 개최하고, 치매예방에 대한 강의와 두뇌회전 놀이, 그리고 치매 자가 검사를 실시했다.



2019 기화장학금 수여

AWCA는 2019년 8월 26일 기화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런거스대 재학생 에스더 정씨와 시라큐대 재학생 서유리씨에게 각각 3,000 달러씩을 전달했다. 기화장학금은 40여년 동안 간호사로 활동하다 은퇴한 곽기화씨가 AWCA를 통해 설립한 것으로 매년 2명의 인재를 뽑아 수여하고 있다.



2019 SAT & ACT 스칼라십 클래스 완료

AWCASAT & ACT 스칼라십 클래스가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6주동안 진행되었다. 모두 22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스텔파니 장 교육디렉터가 주관하고, 그레이스 체리티 파운데이션에서 후원했다.



AWCA, 한인 정신건강위해 CarePlus와 업무협약

AWCA는 2019년 8월 16일 케어플러스(CarePlus)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 전문적인 정신건강상담, 진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0년간 AWCA 가정상담소를 통해 한인사회의 정신건강상담을 해오던 AWC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예방에 집중하고, 상담은 CarePlus 한인 프로그램 (KAOS)을 소개, 연계하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CarePlus는 주정부 지정기관으로 41년간 정신건강 관련 응급 상황부터 입원 치료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케어 센터이다.

사회복지세미나 개최

AWCA는 2019년 7월 15일 회관 강당에서 사회복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랭크 리 강사는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노인아파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별상담을 제공했다.



제 10기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 수료식

AWCA는 2019년 6월 20일 회관에서 제 10회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 수료식을 열었다. 5월 21일부터 5주간의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7월부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핫라인 (877-862-1116) 전화응대 서비스를 하게 된다.



홀리네임 병원 대장암 검진과 예방세미나

AWCA는 2019년 6월 5일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과 공동으로 대장암 검진과 예방 세미나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주로 조기 암 발견의 중요성과 최신 치료기법



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들의 무대 뒤 이야기' 행사 성황

AWCA가 2019년 6월 1일 잉글우드 대강당에서 개최한 '그녀들의 무대 뒤 이야기' 행사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AWCA 설립자 장화인 박사와 윤경복 뉴욕한인 커뮤니티재단 회장, 최영수 잉글우드병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또한 AWCA 백나영 이사와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음악이 감동을 더했다.



봄맞이 시니어 바자회

AWCA는 5월 22일 회관에서 정기 시니어 바자회를 열고 시니어 프로그램 기금을 모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성한 먹거리와 스카프, 액세서리, 주방용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특별히 AWCA 행복만두는 AWCA 이사들의 판매에 힘입어 9천불의 기금을 만들었다.



아시안 시니어센터-마델스테이 축하

AWCA는 2019년 5월 8일 회관 강당에서 한중일 회원 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델스테이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회의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기와 맛있는 런치와 떡, 등이 제공되었다.



어린이 돌봄이 클래스

성인들의 취업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어린이 돌봄이 클래스가 2019년 3월과 4월에 진행되어 모두 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 클래스는 8주동안 스템파니 장, AWCA 교육디렉터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진행되었다.



기금모금 봄맞이 패션쇼

AWCA는 2019년 4월 9일 뉴저지 해켄섹의 리버사이드 몰에 위치한 Oceanaire Seafood Room에서 기금모금 봄맞이 패션쇼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AWCA와 Simon Mall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65명이 참여하여 7천불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은 AWCA 사회복지서비스에 사용된다.



아동학대 방지 클래스 수료식

AWCA그레이스 핫라인 봉사자들은 2019년 3월 아동학대 방지 클래스를 완료한 12명에 대하여 수료증 수여식을 열었다. 수료한 봉사자들은 AWCA 그레이스 핫라인을 통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뇌올림픽 - "치매, 그 두려움을 극복하다" 개최

AWCA와 잉글우드 병원은 4월 13일 토요일 치매예방행사-두뇌 올림픽을 잉글우드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영 정신과 전문의, 신경내과 전문의 최윤범, 수학박사 이크리스, 그리고 웃음치료사 이다나씨가 강사로 참여해, 치매예방을 위한 내용의 강의와 게임, 그리고 영양런치가 제공되었다. 3백여명이 행사에 참여해 치매예방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AWCA 조이합창단 – 삼일절 행사 참여

AWCA 조이합창단은 2019년 3월 1일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특별합창으로



참석자들과 삼일절 독립운동에 대한 감동을 나누었다. 조이합창단은 AWCA 시니어 센터 회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WCA 38주년 – 연례기금모금 만찬행사

AWCA는 2018년 11월 2일 창립 39주년 기념 연례 기금모금 만찬행사를 업스테이트 펠리버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YMCA 명예이사인 이원규 심장내과 전문의의 기조연설과 리버사이드 몰의 멜리사 크로니키스 마케팅 디렉터, 뉴저지초대교회 기관사역부, 김문수 봉사자에게 공로상이 전달되었다. 또한 300여명의 뉴욕·뉴저지 지역의 리더, AWCA 후원자, 봉사자, 회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AWCA 섬김과 봉사를 격려했다.



www.awcanj.org



가족의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 ▶ 노령으로 인한 지병으로 아프신 분
- ▶ 수술 후 돌보아 주실 분이 필요하신 분
- ▶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

무료 사회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는 무료입니다.



유일하게 한인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가정간호 서비스

AWCA 가정간호

9 Genesee Avenue, Teaneck, NJ 07666
Tel. **201-862-9111** Fax. **201-862-0005**

홈케어 소식

2019 하반기 결산

1. 9월 – 3차 In service Training을 위한 Self – Study Homework material 이 모든 홈헬스에이드분께 전달되었습니다. 이 Home Work에 포함된 Topic은 Pain management, Fall Precaution, Safety Precaution, Back Precaution에 대한 것으로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한국말, 중국말로 번역되어 진행하였습니다.

2. 10월 – 57기 CHHA Training Class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57기 홈헬스에이드 양성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은 뉴저지 정부의 승인하에 76시간의 교육을 통해 Certification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1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3. 11월 – 4차 In Service Training Class가 4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와 기타 호흡기 질병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의 홈케어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2020 상반기 결산

1. COVID 19으로 인해 4월 예정이었던 58기 홈헬스에이드 양성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문의해 주셨는데 정부의 지침에 의해 Class를 Open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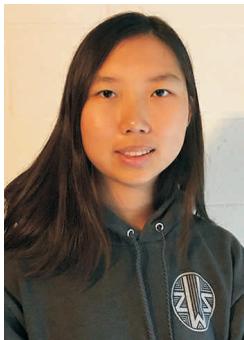
2. In service Training은 모두 Self-Study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모든 홈헬스에이드 분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PP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WCA Home Care소속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든 홈헬스에이드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Meet the AWCA PEOPLE

정 엘리 – 학생봉사자



AWCA는 자라면서 항상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가 AWCA에 참여한 이후, 엄마를 도와 다양한 AWCA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제가 중학생일 때 시작하였고, 그리고 필요한 사회봉사 시간을 일찍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봉사했던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자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역 사회를 도울 수도 있고, 또한 일종의 "자기 관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 – 한국시니어 프로그램 회원



은퇴와 동시에 2006년 3월부터 AWCA 시니어센터의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시간이 그저 어제와 같이 짧게 느껴집니다. AWCA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잊혀진 학문의 배움도 이어가고,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기금모금 바자에서 짧은 이사님들과 함께 물건을 팔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AWCA는 나의 고향이자, 자식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친구입니다. AWCA 사랑합니다.

이 인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



2019년 초 저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심지어 삶의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움을 받고자 AWCA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올해 내가 했던 최고의 일이라 믿습니다.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AWCA의 도움으로 버겐카운티로부터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조금씩 회복되

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자신감이 있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사회를 보탬이 되는 좋은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박 마가렛 – AWCA 이사

지난 2년동안 놀라운 믿음의 여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으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수 차례 갈라 행사에 참석한 후 2018년 이사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지만 저는 그 역사와 사명으로 인해 특히 AWCA에 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해서 아시아 여성과 그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AWCA는 계속해서 우리 가족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25년 전에 AWCA 합창단에 참여했고, 저의 시어머니는 지금 시니어 센터의 회원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쁨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매년 갈라의 주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AWCA의 행함이 있는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성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더욱 더 겸손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쓰미 기타가와 – 일본시니어 프로그램 봉사자

저는 지난 3년동안 AWCA 일본시니어센터에서 시니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어머니는 일본에 살고 계시고,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AWCA를 갈 때마다 항상 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돌볼 수 없는 저에게, AWCA에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큰 기쁨입니다.

제니퍼 왕 – 중국시니어프로그램 봉사자



제가 AWCA 중국시니어프로그램 봉사자로 섬기기 전까지, 2년동안은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사역이 중단되고 다시 뉴저지로 오게 된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AWCA에서 지난 8개 월동안은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AWCA 직원들은

저를 그들의 일부로 대했으며, 가끔 실수를 하는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했으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임앵춘 – 한국시니어프로그램 봉사자



남이 먼저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알고 있는 나의 재능을 주위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라인댄스 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나눔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나눔의 기회를 주신 AWCA에 감사 드립니다.

임서영 – 사회복지사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마치고 직장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도응답으로 AWCA에서 소셜워커로 일을 시작하게 된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습니다. AWCA에서 일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이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AWCA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핫라인서비스, 엔젤입양인한국학교, 직업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AWCA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

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총장님과 저희 직원들은 AWCA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가는 귀한 단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AWCA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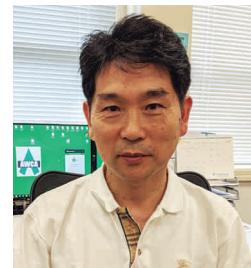
이주남 – 그레이스 핫라인 봉사자



AWCA 가정상담소 그레이스 핫라인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AWCA의 가족이 된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의 나눔과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주신 AWCA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상황을 공감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핫라인 봉사자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지난 봉사의 시간은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고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봉사로 실천하는 AWCA에 감사드립니다.

새직원 소개

김학룡 목사 – 아시안시니어 센터 디렉터



2019년 4월 1일부터 아시안시니어센터 디렉터로 합류했다. 김학룡 디렉터는 부산대학교 영문학 박사학위를, 뉴저지 뉴브런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010년부터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목사로 섬겨왔다. 김 디렉터는 AWCA 아시안 시니어센터(한국, 중국, 일본)–행복교육원의 책임자로서 시니어들의 건강, 자립, 그리고 복지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M.Div
Pusan National University
English Literature & Literary Theory PhD

UPCOMING EVENTS

창립 40주년 기념 – AWCA 유튜브 채널 오픈

AWCA LIFE

사회복지 서비스, 리더십 개발, 치매예방, 홈케어 서비스



AWCA는 창립 40주년을 축하, 기념하며 AWCA 유튜브 채널 – 'AWCA Life' 을 오픈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온 지 4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AWCA에 함께 한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프로그램 멤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실천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섬김' 의 40주년을 다시 기대하며, 우리의 서비스는 뉴저지 버겐카운티를 넘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AWCA Life 시청방법

- ▶ AWC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화면에서 – AWCA Life 베너를 클릭하거나
- ▶ YouTube에 접속하셔서 "AWCA LIFE"를 타이핑하거나
- ▶ AWCA에 전화하시면 개개인에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사회복지상담 및 대행 서비스

월~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전화 응대 및 대면 서비스

문의 : 201-862-1665

장소 : AWCA 회관 1층

아시안 시니어센터 개강 – 온라인 서비스

한국: 9월 8일 (화) 오전 9시 30분 – 카카오톡

일본: 9월 10일 (목) 오전 9시 30분 – Wechat

중국: 9월 11일 (금) 오전 9시 30분 – Lime

홈케어 서비스

오픈 :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문의 : 201-862-9111 (한국어)

201-862-0006 (중국어)

장소 : AWCA 회관 2층

기화장학금 수여식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AWCA 회관 1층

사회복지방송: AWCA와 행복찾기

매주 토: 아침 8:30

K→ Radio AM1660

봉사자 감사의 날

일시: 12월 7일 오후 5시

장소: AWCA 강당

**AWCA
이사회**

회장
명예이사

줄리 디아스
강윤희

이사
장화인, 위옥환, 윤미옥, 원혜경, 이동령,
이형숙, 김선우, 권수잔, 정유진, 박 마가렛,
백나영, 킴벌리 솔로몬

사무총장 제미경

AWCA는 501(c)(3) 정식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기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ian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9 Genesee Avenue, Teaneck, NJ 07666

